

# 새로운 문제보다 잘하는 부분 완벽하게

## 수능 10일 앞으로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선택과 집중'의 난관에 빠지는 시기가. 이 기간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에 따라 수능 당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점수를 얻기는 어렵지만 점수를 잃지 않는 충분한 시간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조급함에 쫓기지 말고 "익숙함을 가까이, 새로움을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D-10'이라는 시간 압박 속에서 누구나 조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10일 남은 기간 새로운 문제 풀이에 지나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영역별 공부시간 균형을 잃어 시험 당일 오히려 잘했던 영역에서 실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 기

## 킬러문항보다 풀었던 문제 점검...실제 성적 좌우 건강관리 기본...수능 시간표에 생체리듬 맞춰야

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취약한 과목을 주로 공부하는 건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본인이 풀었던 문제들을 점검한다는 마인드 세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쉬운 문제를 간과하지 말라는 충고도 이어졌다. 대부분 오답률이 높은 '킬러문항'에 따라 성적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적은 정답률이 높은 초반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초반 쉬운 문제에서 페이스가 막혀 점수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며 "평상시에 잘 풀었던 문제라도 실수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교시 국어영역이 시작되는 오전 8시40분에 최적의 몸 상태가 되도록 수능시계에 바이올리듬을 익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

일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고사장에 도착할 건지를 미리 계획하고, 오전 8시40분 첫 문제를 푸는 순간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이끌 수 있는 생활 패턴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생활 패턴을 수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재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되 오전 8시 40분에 두뇌와 신체가 잘 작동하는 리듬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다.

건강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기간 복통이나 기타 질병으로 2-3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큰 손이다. 수능 당일 생기는 건강상 문제는 경미한 증상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임 대표는 "남은 기간 몸이 이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수능 당일까지 먹을 약을 미리 처방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대, AI 교육 생태계 조성 수준별 교과목 개발 인재 양성

전남대학교가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원)생, 일반인까지 생애 전주기 인공지능(AI) 교육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게 됐다.

전남대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으로서 초·중·고 예비교사인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을 위해 '인공지능과 교육' 교과목을 개발하고, '멀티미디어와 교육'을 교직이론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들은 SW-AI융합형 교수법 등을 직무연수나 특강,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반도체 하는 등 AI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또 광주-전남 두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 AI-SW 체험교실', '빅데이터 IoT실습 캠프' 등을 통해 AI와 SW에 대한 지평확대와 인재발굴에 나서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도 개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재직자나 일반인을 위해 'CNU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확대해 AI교육 인증과정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더구나 전남대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음으로써 초·중·고교생에서 대학(원)생, 비전공자와 재직자, 구직자,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AI교육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인공지능혁신공공대학'을 주관하면서, 전국 7개 대학 50개 학과 360여명의 교수들과 함께 '인공지능의 기초와 활용', '딥러닝', '음성인식' 등 AI교육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동교과목 18개와 대학별 특화교과목 20개를 개발하고, AI 전문가와 융합인력 2만 명을 양성해 나간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청소년 주도 자치한미당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무대에서 '2021 청소년 주도 자치한미당-우리가 직접 한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이 마을과 학교를 무대로 민주시민 실천 활동 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한미당'에는 지역 청소년 40팀(초등연령 20팀, 중등연령 20팀)이 참가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조선대, 졸업 후에도 취업 책임 지원한다

### '취업성공 사관학교' 확대 운영

조선대학교가 청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취업성공 사관학교(잡매칭) 6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채용 노하우 전수,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다.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 취업전략팀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인원 연간 300명, 취업성공 40명의 성과를 보여준 '취업성공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졸업생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졸업 후 취업지원 소외계층으로 분류됐던 졸업생들에 대한 본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120여명의 졸업생

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은 교내에 상주하고 있는 잡매칭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류, 면접컨설팅 등을 지원받았다.

또한 국내 정상의 강사들이 제공하는 최신의 취업준비 및 직무역량 관련 온라인 콘텐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모의테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구체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받아 실제 입사까지 이어졌다.

취업전략팀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발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신설학과인 미디어콘텐츠과 일일체험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방송실습을 하고 있다.

## "친환경 미래車·사회 트렌드 이끈다"

동강대, 미래자동차과·미디어콘텐츠과·외식창업과 신설 간호학과·임상병리과·유아교육과 4년제 학사학위 취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내년 미래자동차과와 미디어콘텐츠과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학과 운영으로 경쟁력을 또 한 번 높인다.

동강대는 오는 22일까지 2022학년도 수시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동강대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통해 공학·간호보건·인문사회·예체능 등 4개 계열 22개 학과에서 1001명을 모집한다.

동강대는 사회트렌드에 맞춰 공학계열에 미래자동차과와 미디어콘텐츠과, 야간학과로 외식창업과를 신설한다.

미래자동차과는 이번 입시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특화반 소수 정예 30명을 모집한다. 지난 8월 ㈜기아로부터 최신행 전기자동차를 기증받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 실습실 공동사용, 기자자동차 현장 실습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착작 진행 중이다. 또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취업 협약 등 차별화 된 교육과정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강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P-Tech(피텍)' 사업과 올해 계약학과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정부의 굵직한 사업에 선정돼 장학 혜택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와 '미래 친환경 에너지' 등 2개의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 광주지역 전문대 가운데 '지역혁신 플랫폼'에 유일하게 참여해 미래 친환경 운송수단인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 인재양성으로 호남지역 신산업 성장 동력의 기틀을 튼튼히 다진다.

미디어콘텐츠과의 경우 방송 PD 출신의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구성해 1인 방송과 유튜브 양성을 목표로 방송예술과 영상편집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울 신설학과인 미래자동차과와 미디어콘텐츠과는 각각 '청소년 유튜브 & UCC 공모전'과 '친환경 미래자동차 만들기' 공모전을 진행해 관련 분야 인재 발굴에 나선다. 공모전에는 각각 총 상금 1000만 원이 걸려있고, 특히 1등 수상자는 동강대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외식창업과는 외식조리제빵과의 야간 학과로 입학 희망자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해 창업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차별화한다.

여기에 4년제 학사과정인 간호학과는 특성화고교 등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입학전형 완화와 모집인원을 증원하는 등 입학기회를 넓힌다. 신입생 모집 인원도 15명 늘려 총 165명을 뽑고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한다.

이밖에도 동강대는 기존 학과들의 경쟁력을 더욱 탄탄히 하는데 힘쓰고 있다.

군사학과는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육군 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부사관 학군단)를 유치해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임상병리학과와 유아교육과도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발표한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합승아교무입학처장은 "동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자동차, 미디어콘텐츠 등을 신설하고 학과 경쟁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300억 원의 지원받아 장학혜택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경쟁력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체제까지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중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